

최고를 향해 달려온 27년

호남정유의 어제 · 오늘 · 내일



朴漢圭
〈호남정유 홍보광고팀 대리〉

현

대산업사회에 있어서 에너지이용수준은 곧 국민생활수준을 의미하며, 산업의 동력원으로서 에너지산업의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공업화의 유아기에 머물러 있던 湖南精油 설립 당시 한국경제에서 에너지산업은 전형적인 사회간접자본으로서 그 외부 경제적인 효과와 공업의 발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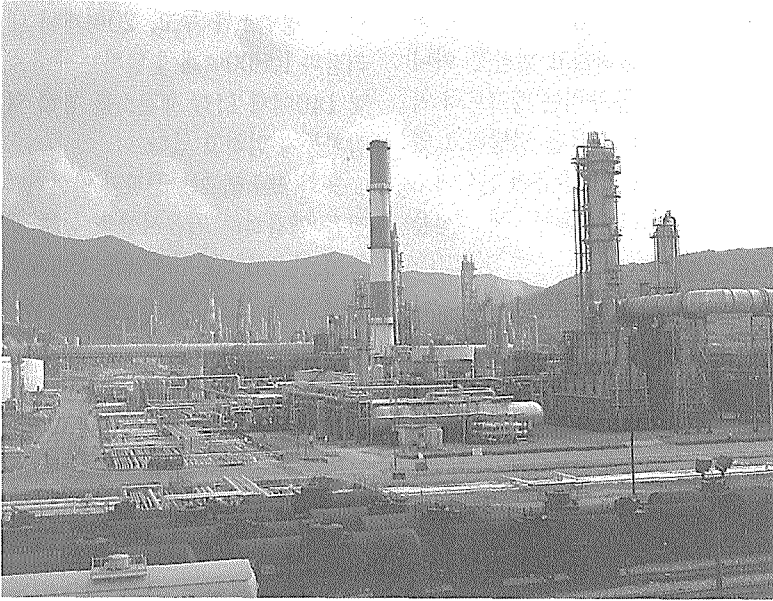
따라서 에너지의 장기·안정적인 공급문제는 근대화과정을 촉진시키기 위해 가장 급속히 해결해야 할 과제였다.

오는 5월 19일로 창립 27주년을 맞이하는 국내최초의 민간정유사, 湖南精油의 역사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본다.

湖南精油의 탄생

제 1차경제개발계획이 성공적으로 완수되고 정부에서는 식량의 자급, 중화학공업의 육성, 7억달러 수출, 고용증대, 기술향상 등을 골자로 하는 제 2차경제개발계획을 67년 발표하였다. 이 계획의 성공을 위해서는 제 2정유공장의 건설, 나프타분해센터의 건설에서 PVC, PE, 아크로니트릴공장에 이르는 석유화학단지의 조성이 요구되었으며, 아울러 '60년이후 湖南精油 麗川공장이 착공에 들어간 1967년까지 경제성장률의 2배를 상회하는 에너지 소비증가율에 발맞출 수 있는 에너지의 공급에도 주력해야만 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는 민간이 참여하는 제 2정유공장 건설의 실수요자를 공모하였다. 그러나 럭키는 정부의 공모에 앞서 신규확장사업



분야를 모색하던 중 정유업 내지 석유화학사업에 관심을 가졌으며, 具平會상무(당시)를 중심으로 한 럭키의 개발팀은 정유사업의 구체적 타당성 및 경제성 검토를 마쳐 사업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한 바 있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1966년 11월 정부로부터 실수요자로 선정되어 美國의 칼텍스와 합작으로 하루 原油정제능력 6만배럴규모의 정유공장건설에 착수했다. 1967년 5월 18일 제 1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여 공동대표이사 사장에 具仁會 선대회장을 선임하여 다음 날 설립등기를 마쳤으니 지금부터 23년전의 일이다. 이것은 단순히 어느 한 회사 설립의 의미를 떠나 민간기업체가 국가 에너지사업에 적극 참여하게 됨으로써 향후 韓國경제의 자생력을 암시하는 신호탄이었다.

국내최고의 종합에너지 회사로

68년 4월 착공에 들어가 상압증류탑 등 한갓 셋덩이에 불과하던 기계들이 박동하기 시작한 날은 다음 해인 69년 3월 15일이었다. 하루 6만배럴의 원유를 머금어 6,390배럴의 휘발유를 비롯하여 22,440배럴의 벵커-C油에 이르기까지 도합 57,754배럴의 제품을 쏟아내는 기적이 연출되었다. 이후 회사는 경제발전에서 따른 유류수요증가에 발맞추어 정제능력을 계속 확장시켜 나갔다. 70년 10월 기존의 시설을 확장하는 방법으로 일산 10만배럴 정제규모로 확대했으며, 탈염시설도 함께 건설했다. 일산 6만배럴 규모의 제 2공정시설을 회사 자체기술로 주관, 완

료한 2차확장공사는 72년 10월에 이루어졌으며, 78년 3차확장공사는 세부설계를 국내의 전엔지니어링 회사에 의뢰하여 국내기술 축적에 기여하면서 총 原油정제능력은 23만배럴로 늘어났다.

하루 원유정제능력 38만배럴로 호남정유를 국내최대로 만들어 낸 제 4차확장공사는 불투명한경기전망과 수요예측속에서 내려진 용단이었다. 原油정제능력 15만배럴 증설, 제 2 LPG공정시설 증설, 아스팔트공정시설 확장, 仁川 LPG시설 신설, 원유부두건설, 쌍봉사택건설을 주내용으로 하는 본사업은 79년 4월에서 81년 4월까지 만 2년이 소요된 湖南精油 최대의 역사(役事)였다. 이 공사가 완료됨으로써 당시 湖南精油는 국내 최대는 물론 세계 20위 안에 드는 대규모단위공장으로 성장하기에 이르렀으며, 69년 麗川공장의 첫 가동으로부터 불과 12년 사이에 6배가 넘는 생산시설을 갖게 되었다. 이미 지난 92년 정부의 허가를 받은 22만배럴 규모의 제 4상압 증류시설이 완공되는 96년에는 60만배럴 규모의 세계적인 정유공장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또한 경질유종의 수요증가에 대비, 중질유분해를 위한 RFCC시설 및 탈황시설을 7만배럴과 5만배럴 규모로 95년과 97년 단계적으로 완공할 예정이다.

湖南精油는 제 2차 석유위기 이후 原油도입선 다변화정책 및 저유황제품 공급계획에 따라 세계 각지에서

원유를 수입하고 있다. 原油수송은 가동초기에 외국선박에만 의존하였으나, 72년 湖南탱카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국적선에 의한 수송을 시작하였으며, 현재는 석유제품의 연안수송을 담당하던 대한유조선(주)를 합병하여 「호남필」호를 비롯한 8척의 원유수송선과 11척의 석유제품수송선 및 9척의 LPG수송선을 보유하고 있으며, 회사명칭은 호유해운(주)로 변경하였다. 麗川공장에서 분리·정제·전환공정 등을 거쳐 생산된 제품은 총연장 740m, 총 9만 7천톤 규모까지 동시 접안가능한 대규모의 제품출하 부두 6개 및 접안능력 3천 DWT의 LPG 전용출하부두를 보유함으로써 제품의 해상출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전용화차를 이용하여 하루 평균 160~170량의 각종 유류제품을 철도로 출하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여천공단에 나프타, 벙커-C유,

경유 등을 각 공장과 직접 연결된 송유관을 통해 출하하고 있을뿐 아니라, 전국 각지를 누비는 탱크트럭 역시 제품수송의 큰 몫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곧 완공될 송유관 건설에도 참여하여 안정적 제품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무공해에너지로 그 중요성이 날로 더해가는 LPG 사업분야에도 진출한 호남정유는 84년 여수에너지(주)를 설립하여 이땅에 본격적인 LPG 시대의 막을 열었다. 이후 여수에너지는 91년 호유에너지(주)로 새단장을 했다.

湖南精油의 임직원들은 가정에서부터 각종 생산업체, 건설현장, 자동차, 철도, 항공 그리고 선박 등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분야의 고객 모두와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고자 모든 정성을 쏟고 있으며, 이에 고객들이 원하는 석유제품을 보다 신속·정확하게 공급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 지

사 및 영업소를 두고, 20여개의 대리점과 1,800여개에 달하는 주유소 및 140여개 LPG 충전소를 통해 영업활동에 임하고 있다.

또한 湖南精油는 공장과 일선판매점을 연결하는 저유시설을 통해 제품이 신속하고도 안전하게 소비자의 손에 닿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 仁川과 釜山의 초대형저유소를 비롯하여 大邱, 大田, 光州, 全州, 濟州 등 전국 각지에 24개의 저유소를 두어, 전국 어디에나 신속하게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완벽한 공급망을 갖추고 있다.

석유화학의 湖南精油

湖南精油의 최종목적지는 종합에너지 및 석유화학 기업이다. 69년 건설된 윤활유공장에서는 칼텍스와 기술 제휴를 통해 최고급 자동차용, 산업용, 해상용, 윤활유 등 120여종에 달하는 각종 윤활유 및 그리이스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특히 86년에는 최신 자동공정의 그리이스 공장을 완공하여 다양한 용도의 고급그리이스를 양산하고 있으며, 88년 8월 국내 최초로 SG급 엔진오일을 「슈프림 CXT 모터오일」이라는 이름으로 시판을 시작, 고품질 윤활유시대를 열어놓았으며 93년 8월 세계 최고 등급의 SH급 윤활유 「슈프림디럭스 골드」의 생산을 개시했다. 또한 고객의 적절한 윤활유 선택과 관리를 돕기 위해 윤활유 전문요원



으로 구성된 완벽한 대고객기술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정유업 일변도에서 벗어나 수평·수직적 사업다각화를 통한 석유화학 기업으로의 첫걸음은 P, P분야에서 시작되었다. 86년 2월 미국 UCC와 Shell이 공동개발한 최첨단기상중합 방식인 "UNIPOL PP"공법을 세계 최초로 도입하여 88년 1월 연산 12만톤 규모의 PP공장을 준공, 89년 12

월 연산 60만톤 규모의 BTX 공장도 90년 9월에 완공되어 현재 높은 수익성을 시현하고 있다.

끊임없는 연구개발만이 좋은 제품을 만드는 길이며, 그것이 곧 최고의 품질로 고객과 사회에 만족을 준다는 회사의 기본목표를 달성하는 길이라고 믿고 있다. 최상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최신장비의 설치는

소재 등의 첨단기술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에도 주력할 것이다. 현재 기술연구원이 입주할 아파트는 마무리 내부장식을 손질하고 있다.

湖南精油의 기업정신

에너지분야를 맡고 있는 사업체는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함으로써 국민생활에 편의를 제고해야 하며, 공해없는 연료의 공급을 통해 쾌적하고 안락한 환경조성에 이바지해야 한다. 「좋은 석유 맑은 공기」-湖南精油는 품질좋은 석유제품의 공급과 함께 자연환경보존을 위하여 환경관리를 회사의 최우선 목표중의 하나로, 또한 성장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기업활동을 환경적인 측면에서 수행하기 위한 정책수립, 시설투자, 기술개발 등을 수행하고 있다.

각종 오염물질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전기집진기, 폐수처리장 등에 지난 90년 이후에만 약 700억원을 투자하였으며, 연료전지스택개발 등 첨단 환경보전기술을 개발중에 있다. 향후, 대기환경 보전을 위하여 중질유 분해시설 및 탈황시설에 1조 400억원을 투자, 초저황 연료유 및 청정 휘발유를 공급할 예정이며, 수질 및 폐기물 환경개선을 위하여 약 200억 원을 투입, 종합 폐수처리장, 액상소각로, 폐기물매립장 등을 건설하고 있다.

또한 1드림의 제품보다 1건의 사



월 연산 16.5만톤 규모로 확장한 이후 다양하고 우수한 품질의 PP제품 "하이프린"을 생산·공급하고 있으며,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철저한 서비스활동으로 고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한편 합작투자(20% 지분)로 설립한 삼남석유화학의 연산 20만톤 규모 麗川 TPA공장이 90년 3월 상업생산에 들어갔으며 현재 28만톤의 생산능력을 갖고 있으며 25만톤의 증설을 추진중에 있다. 나프타를 개

물론, 전사적인 품질관리활동을 전개하여 생산성 향상과 기술개발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호남정유는 93년 국내 정유업계 최초로 ISO 품질인증을 획득하여 그 기술력을 세계적으로 인증받은 바 있다.

86년초 기술연구소를 설립하여 연구개발의 활동을 강화하였으며, 95년까지는 대덕에 독립연구소를 건립하여 품질관리, 제품개발 등의 향상을 기할뿐 아니라 대체에너지와 신

고방지가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사고 방지를 위해 각종 정유시설 및 출하 시설에 대해 고도의 기술 및 숙련을 바탕으로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두번째 400만인 시 무사고 기록을 달성한 바 있다. 특히 여천공장에서는 각종 최신 소방장치를 갖추고 귀중한 인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에너지절감은 곧 외화획득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공정의 모든 면을 향상·발전시키고 있으며, 麗川공장의 폐열회수보일러는 연간 40여억원의 연료비를 절감, 생산원가를 줄이는데 큰 공헌을 하고 있으며, 또한 소비처의 에너지절감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함으로써 湖南精油의 캐치프레이즈인 「석유를 아깝시다」를 행동으로 실천하고 있다.

전사원이 이용할 수 있는 종합휴양 및 수련장소로서 서울근교에 세운 대규모 수련시설을 비롯하여 하계휴양 기간중에 이용할 수 있는 하계휴양소를 동해안 속초 일원 및 지리산 산자락과 만성리해수욕장에 마련하여 심신단련을 도모하도록 하였으며 공장 사원들을 위해서는 쾌적한 환경의 사택촌을, 그리고 내집 마련을 위한 주택자금 융자와 자녀들의 학자금 지원제도 뿐만 아니라 신융합동조합을 운영하여 실질적인 복지향상과 내일의 주인공을 키우는데 노력하는 한편, 94년 3월 현대 84연승의 대기록을 쌓아가고 있는 여자 배구단 및 에이스급의 국가대표선수

를 보유하고 있는 남자테니스단의 육성을 통해 사원 사기진작과 체육발전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호남정유가 사원의 복리후생증진을 최우선적 과제의 하나로 믿고 있는 이유는 이들 한사람, 한사람의 땀방울이 오늘의 호남정유를 이룩했고, 또 앞으로 그럴 것이기 때문이다. 끊임없이 연구 노력하는 임직원은 호남정유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것이며, 이들이 갖춘 우수한 자질을 통해 더욱 찬란하게 펼쳐질 것이다. 이런 우수한 자질을 갖춘 임직원으로 구성된 호남정유는 91년 세계적 경영전문지 포춘지가 집계한 500대 기업중 1인당 매출액에서 세계 5위에 랭크되기도 하였다. 이들의 능력을 더욱 갈고 닦기 위하여 호남정유는 장기적인 계획아래 경영훈련, 직능교육 등 다각적인 국내연수와 조직개발노력은 물론 국제사회에서의 보다 폭넓은 안목과 지식을 기르기 위한 장단기 해외연수도 꾸준히 강화해나가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금년도 장기 해외연수 대상자로 임원 5명과 부장 12명을 선발하였다.

호남정유는 89년 9월 「정유와 석유화학의 합리적인 결합으로 소비자에게 최대의 만족을 주는 고품질에너지 및 유화제품을 제공함으로써 업계제일의 신뢰와 수익력을 확보하여 종합에너지 및 석유화학분야의 이상적 모델기업으로 성장」할 것을 회사 장기비전으로 정립했으며, 질 위주의 일등주의 실현을 위한 노력을

착착 진행중이며 의욕적인 구체화작업도 진행중이다.

「고객을 위한 가치창조」, 「인간존중의 경영」을 기업경영의 두 축으로 삼고 있는 호남정유는 고객의 소리에 항상 귀기울이고 있다.

92년 업계최초로 고객서비스팀을 설치하여 고객들의 질의에 응답하고 있으며, 고객이 제기한 불만을 최우선으로 처리하는 업무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92년 이후 매년 4월이면 사장을 비롯한 전 임직원이 주유소에 나가 1일 주유원으로 근무하며 고객의 소리를 직접 듣고 경영에 반영하고 있으며, 또 고객을 다양한 문화행사에 초대하는 「푸른문화예술축제」는 고객들의 전폭적 지지와 성원을 얻고 있다.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종업원을 존중하는 경영이념, 한순간을 빛내고 사라지는 한방울의 이슬을 받는 정신으로 한방울의 石油를 만들어내는 호유인의 깨끗한 손, 이것이 지난 27년동안 국내 최고의 정유회사로 湖南精油를 발전시킨 원동력이다.

국민과 함께 성장해온 湖南精油 27년 -.

호남정유는 앞으로도 항상 연구하고, 책임을 다하는 기업, 사회에 공헌하는 기업으로서 직분과 사명을 다할 것이며, 다가오는 2000년대에는 밝은 미래를 이끌어가는 묵묵한 일꾼의 직분에 충실할 것이다. ●